

“출가는 고통 벗어나는 선택지”

“끝없는 이타행이 출가정신”



Interview

출가동영상 공모전 수상자 정은혜 · 조동성 씨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따라서 힘들 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출가(出家)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정은혜 · 사진 오른쪽)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세상을 향해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조동성 · 사진 왼쪽)

올해를 ‘출가 진흥 원년’으로 삼은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 6월 1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0일에 걸쳐 실시한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정은혜 씨(데일리TV 사원)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동성 씨(크리에이티브 이스트 PD)는 각각 불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출가에 대한 이미지를 풀어냈다.

정 씨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라는 작품에서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이 출가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표현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나를 위한 길’에 초점을 맞춰 출가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조명했다.

정 씨는 “제가 대상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작품이 많아 부끄럽다. 공모전에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 조계종의 출가진흥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힌 뒤 “먼저 ‘불교’를 생각했을 때 산속이나 고립 등이 떠올랐는데 출가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어 “맨 처음 출가포스터를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 특히 포스터에 등장한 스님들이 일반 모델이라고 착각할 만큼 자연스럽고, 출가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다”면서 “공모전을 준비하며 출가콘서트에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출가가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따라서 출가라는 선택이 행복의 길에 들어서는 하나의 방법임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웹서핑을 통해 공모전을 알게 됐다는 정 씨는 공모전 작품을 제작하며 단기출가에도 관심이 생겼다. 정 씨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일반인 눈으로 풀어낸 출가
공모 준비로 불교 가까워져
“출가진흥사업에 도움 되길”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출가에 관심이 생겼다. 단기출가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조 씨는 ‘출가’라는 작품에서 출가수행자의 이타행을 강조했다. 그는 영상에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모습과 〈숫타니파타〉를 인용한 문구를 통해 남을 먼저 제도하는 부처의 마음을 표현했다.

조 씨는 “동국대를 졸업한 인연 덕에 불자 친구들이 공모전 참가를 권유해 작품을 만들게 됐다”면서 “대학시절 불교강의를 들은 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대중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수행자의 정신이 끝없는 이타행임을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또 “이 작품은 불자들과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타행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출가동영상 공모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문직 종사자,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58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조계종 교육원은 수상작 6편과 가작 14편을 출가 홈페이지(monk.buddhism.or.kr)에 게재, 추후 출가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JSA법당 불사에 5억 원 ‘쾌척’

군종특별교구 등, 6월 14일 아름다운동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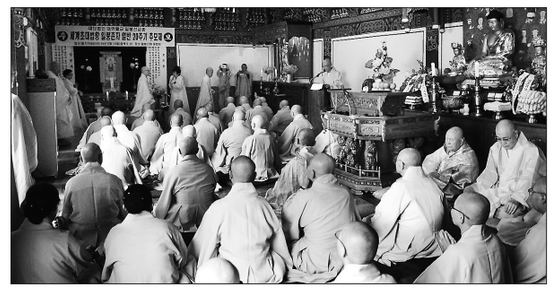
군법당 및 군법사들을 비롯해 전국 사찰 곳곳서 JSA 공동경비구역 근법당 불사를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6월 14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재)아름다운동행 측에 JSA 근법당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홍법문화재단 · 여래사 · 구룡사는 1억 원, 근법당 및 근법사 일동은 2억 원을 기부해 총 5억 원의 성금이 JSA근법당 불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일붕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선원 대법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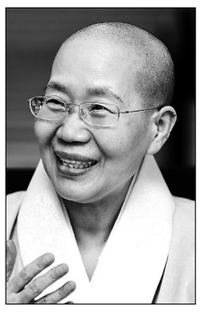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6월 13일 서울 신영동 일붕선원 3층 대법당에서 ‘세계초대법왕 일붕존자 열반 20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교육원장 승원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종정 지공 스님,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성 스님 등 종단임원 및 종도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사회 소외계층 인권 위해 나설 것”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계환 스님



“아직 우리 사회에는 많은 소수자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인권을 살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동국대 교수 계환 스님〈사진〉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으로 계환 스님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배경과 관련해 “계환 스님은 불교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여성 종교인으로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소수자들의 인권향상에 오랜 기간 헌신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사회통합을 실천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계환 스님은 “노인,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 사각지대에는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바로 인권 사상이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계환 스님은 법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하나조노대, 경도 불교대학원 석 · 박사과정을 수료,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 중앙도서관장,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등을 지냈으며,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원교사 주지, 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며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신축강당 기공

수련회 위한 공간으로… 개원 29주년 행사도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 신축강당 기공식 및 화합재가 6월 12일 경내에서 봉행됐다. 〈사진〉

신축강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5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신행단체 수행공간과 공양간, 수련회 참가자 숙소, 수련회 강당 등이 들어서며 내년 8월 낙성 예정이다.

제주지원은 그동안 타 지방 선원에서 합동수련회 등을 제안했지만 제주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수용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타 수련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원장 혜묘 스님은 “강당 건립을 통해 수련회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신도회장은 “강당불사가 원만히 회향하도록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다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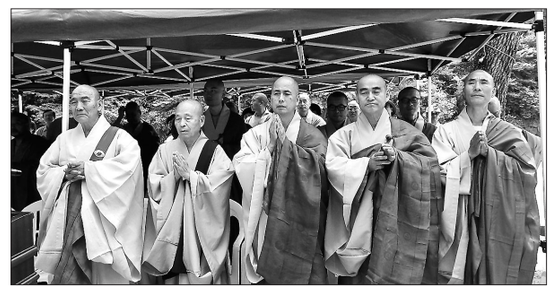
이어 사부대중은 대웅보전에서 기공식 현장으로 이동, 화합재 단에 초와 향을 올리고 3배를 한 후 시삽 하면서 불사가 원만성취 되길 기원했다. 이후에는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한마음 한마당이 펼쳐졌다.

신도들은 합창 · 댄스 · 난타 · 전통무용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취미를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안양본원에서 온 국악신동 최 준 군의 감동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의성 고운사, 중창사적비 제막

일주문 뒤 고운노인요양원 앞에 세워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6월 14일 고운사중창사적비를 제막했다. 사적비는 고운사 일주문 뒤 고운노인요양원 앞에 세워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송암 스님, 각성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등 30여 명의 스님들과 50여 대중이 참석했다. 사적비 붓글씨와 비문은 각성 스님이 썼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